

회화를 통한 미술교육 -20세기 후기 회화를 중심으로-

Research on Art Education through Paintings -Centering on the Paintings in the Latter Period of the 20th Century-

안대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Dae-Hyun An(adh34@hanmail.net)

요약

20세기 전기 미술교육은 표현주의와 실용주의 교육방법으로 일관되었다면, 후기 미술교육은 다양성, 대중성과 같은 시대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세기 후기 회화의 다양성과 미술교육에 대한 것이며, 특히 현대회화의 역사 속에 나타난 몇몇 미술가의 작품 양상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후기 모더니즘의 미술교육을 이해하려 한다. 20세기 후기 회화에 나타난 다양한 이미지들은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방식으로 증식되고 또 과거와 현재가 자유롭게 한 화면에서 결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대 미술가들의 다양한 표현은 20세기 전반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오늘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매체접근을 길러주기 위함이며, 미술교육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양식표현과 이해를 돕고자 하는 관점이다.

■ 중심어 : | 후기 모더니즘 | 미술교육 | 회화 |

Abstract

The art education in the latter period of the 20th century was conducted in the same cramming method as education of expressionism and pragmatism from beginning to end, while post-modernism can be interpreted as a viewpoint of reflecting the diversity, popularity and needs of the era.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research is aimed at looking for an educational method that can reflect the educational method of this present period. Thus, this research is trying to analyze the works of some artists showing a variety of styles of the post-modernism period and to inquire into a new direction at a viewpoint of the post-modernism where divers cultures co-exist.

This research considered these artists' works as the objects for comparison because there exists an aspect of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re are more diverse-style-based expression in the post-modernism art education though their subject and format are

different individually. Therefore, this research is conducted at a viewpoint of assisting in the understanding of more diverse style-based painting in the post-modernism education.

■ keyword : | Post-Modernism | Art Education | Painting |

I. 서론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후기 모더니즘시대에 미술교육의 다양성을 고찰하기 위해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 - 1992),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 -)의 작품들에서 보여 지는 다원성을 비교 분석하여 미술 교육의 방향을 모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후기 모더니즘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다원화 사회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은 표현주의와 실용주의 미술교육의 결합으로 정형적이며 주입적인 틀에 박힌 미술교육방법으로 일관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미술교육 방법이 후기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교육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 규격화를 깨고 현 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는 G. 리히터, F. 베이컨의 작품을 연구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 시대의 미술교육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먼저 F. 베이컨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에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전통의 틀을 거부하여 새로운 회화의 영역을 넓히며 이미 과거의 재현 양식으로 간주되는 회화의 존재가능성을 다양성으로 추구하고있다. 일관성 있고 전후관계가 명료한 작가의 길을 걷는 대신, 행위를 동반한 인체추상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충되는 양극들을 모두 다루는 그의 다원성은 전통예술과 아방가르드, 구상과 추상으로 구분하여 미술을 계열화시켰던 모더니즘 회화양식의 범주로는 묶어 둘 수 없을 것이다.

G. 리히터의 회화들은 물감으로 덧칠해 놓은 사진위에 이미지를 왜곡시킴으로써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손상시킨다. 그러나 G. 리히터의 작품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의 이러한 애매모호함과 불투명성이 단지 무의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주제와 양식에 있어 후기 모더니즘 미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처럼 이들의 다원화된 회화양식을 이용하여 후기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매체접근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미술교육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양식표현과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후기 모더니즘의 회화의 다양성과 미술교육에 대한 것이며, 특히 현대회화의 역사 속에 나타난 몇몇 미술가의 작품 양상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후기 모더니즘의 미술교육을 이해하려 한다.

20세기 현대회화 중 다양한 표현 매체가 등장하게 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미술사조인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그리고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의 작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입체주의 회화이다. 입체주의 회화는 동일한 화면에 한 사물의 앞, 뒤, 위, 아래, 측면 등을 배치하여 사물의 다양한 앵글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회화의 영역을 확장 하였다.

20세기 회화에 나타난 다양한 이미지들은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방식으로 증식되고 또 과거와 현재가 자유롭게 한 화면에서 결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대 미술가들의 다양한 표현은 20세기 전반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 분열화, 파편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후기 산업사회 속에 나타나는 다원적 사회 현상이 한 회화평면 속에 질서보다는 혼돈, 단편성 보다는 복합성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한 화면 안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서로 병치되고 결합을 이루어 여러 개의 해석을 동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활동한 두 명의 작가 G. 리히터 F. 베이컨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작품에서 나타난 형상화 과정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첫째, 본문의 첫 장인 II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미술교육에 대한 개념을 살펴 본 후 현재 변화되고 있는 후기 모더니즘 미술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III. 장에서는 20세기 전반에 나타난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그리고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의 작품에

표현된 회화를 고찰한다. 20세기 후기 회화에 표현된 화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들은 이전과 달리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특히 시간과 공간을 통해 단일한 형태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고찰한다.

셋째, IV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명의 작가, G. 리히터, F. 베이컨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 요소들이 형성화 되는 과정을 살핀다. 이들의 작품들은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인 미술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장 결론과 논의에서는 G. 리히터, F. 베이컨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현대 미술의 폭넓은 이해와 사물에 대한 새로운 형상의 발견, 체험, 긍정적 정서 함양 등의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한다.

II. 미술교육의 개념과 특성

2.1 미술교육의 개념

미술교육은 전인 교육의 측면에서 조형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감성과 미적 가치의 인식을 통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가진 개성, 잠재력, 소질 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미적 교육, 정서교육 측면과 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생활교육적인 측면을 조화롭게 강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술교육은 오랜 전통을 가진 기능 중심의 미술 수업, 교사주도형 학습 형태에 안주하여 시대의 조류와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현대 미술교육은 다양한 기법과 재료의 활용을 통하여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조형능력을 길러주며 감상과 이해, 표현활동으로 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얻을 수 있다. 현대 미술에 쓰이는 다양한 표현 기법과 재료들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난해한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함양 할 수 있다. 일상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브제를 활용함으로써 주변 사물을 새롭게 보는 안목을 길러주어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 미적체험, 표현 및 감상, 발표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가치 인식과 미적 안목을 향상시키며 올바른 감상의 태도를 기르고 미술작품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즉 현대미술을 통한 미술의 관심과 흥미의 증가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표현력, 자신감을 길러주며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미술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계발시키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미적 대상을 찾아가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애호하고 향유할 수 있는 미술적 생활인이 될 수 있게 이끌어준다.

2.2 후기 모더니즘 미술교육의 특성

오늘날 현대의 미술교육은 하나의 가치체계가 아닌 다양한 가치체계를 수용하며, 다원주의적 접근을 지지하고, 과거의 전통 역시 가치체계로 포괄하고자 한다. 즉, 경계를 깨뜨림으로써 열린 시각의 변화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미술장르가 문화들의 다원론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대미술에서 하나의 진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다의적이고 복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후기 모더니즘 미술교육의 특성은 몇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고 다양한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이해의 지평을 넘어서서 작품에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고 제작자의 생각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날 미술교육에서의 다양성이란 작품을 제작한 작가뿐만 아니라 감상자인 대중까지도 중시함을 의미한다. 20세기 이전에서는 작품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작가 자신 즉 개인적 견해의 산물 이었다면, 오늘날 미술교육에서 작품은 제작자와 대중과 감상자의 상상력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후기 모더니즘 미술교육은 권위나 위계를 효

과적으로 붕괴시키고 각각의 주체를 인정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작품을 감상하는 개개인의 이해와 작품을 만든 제작자 모두를 독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술교육은 감상의 결과보고서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 뿐만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과정까지도 중요시한다.

오늘날의 미술작품은 대중들이 느끼고 보는 것이 이전과 같이 앓다는 것이다. 그 예로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표현요소 중 하나인 이미지차용은 원래의 원본을 이미지를 복제 또는 결합함으로써 그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새로운 해석을 유발시킨다. 즉 사진이나 드로잉 같은 이미지의 복제를 통해 이미지를 제작하지만 그 결과물의 의미는 불확실성을 유출시킨다. 이처럼 이미지의 차용은 사진, 잡지나 광고 등 대중문화 속의 이미지를 응용해 복제하거나 다른 이미지를 결합시켜 새로운 성격으로 변화를 통해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제작자들은 종종 다양한 자연적이며 인공적인 물건들을 자신들의 작품에 이미지를 차용하고 그것을 해체하기도 한다. 이미지 해체는 신표현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의 이미지들을 그 모티브나 표현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그 이미지들의 사용방법에서 복수적이며 해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해체적 상황은 후기 모더니즘 상황에서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미지 차용과 해체를 통한 미술교육은 대중매체에 실린 사진, 잡지나 광고 등 대중문화 속의 일상의 오브제가 미술의 재료가 되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술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미술에 흥미를 잃어왔던 학생들도 미술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미술에 대해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 미술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자.

III. 현대 미술의 개념 및 특징

3.1 현대미술에 나타난 다원성의 전개

인상주의 이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현대의 미술계는 기존 체제를 변혁시킬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표현의 장르와 기법들 또한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

현대의 급격한 발달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편리하게 바뀌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술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현대 미술은 끊임없이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나가면서 형식에서 내용 중심으로, 개인적 요구에 의한 표현에서 사회적 요구에 따른 표현으로 작품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양식의 공존화가 이루어졌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유럽 각지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미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이 지향하고 나선 것은 르네상스 이래 가꾸어온 전통적 미술에 대한 거부였다.

20세기 미술은 프랑스의 야수주의와 함께 시작된다. 거친 붓질과 강한 원색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야수주의와 거의 같은 시기에 20세기의 독일 표현주의 운동이 등장한다. 독일 표현주의의 양식은 불안과 고뇌가 얽히고 다분히 비극적인 화풍으로 야수주의의 개방적인 관능성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야수주의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피카소와 브라크를 중심으로 입체주의에 자리를 몰려준다. 입체주의는 단시점의 재현적 묘사가 아니라 다시점으로 관찰한 수많은 부위들을 화면에 재배치하는 방법을 찾아내었으며 입체주의 후기로 들어서서는 파괴에 콜레에 이어 콜라주 기법이 등장하면서 회화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다다 운동은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과격한 운동으로 기존의 미학을 거부하며, 반 예술적, 반윤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등장하였다. 다다 운동은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까지 파급되었는데 그 주요 작가들로는 M. 뒤상, F. 피카비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무대가 파리로 옮겨지자 곧 이어 초현실주의 속에 흡수되었다.

초현실주의는 비단 조형 예술뿐만 아니라 문학, 사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정신운동으로서 이 때까지는 미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무의식, 잠재의식에 관심을 가지며 이성에 의해 억압된 상상력의 해방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 무의식의 세계를 순수한 상태로 표현하기 위해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자동기술법, 데칼코마니, 테페이즈망 기법 등을 응용하여 환상적인 세계를 펼쳐내었다

50년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추상표현주의가 세계적으로 크게 파급되었다. 추상표현주의는 다다의 반 예술적 정신을 이어받고,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초현실주의 자동기술법을 동화시켜서 세계 대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추상미술을 전개시켰다. 특히 액션페인팅은 행위 그림이 형식으로 전통적인 회화의 공간성이 없는 전면균질의 회화 작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대표적인 액션 페인팅의 화가로서는 J. 폴록, D. 쿠닝 등을 대표적인 작가로 꼽을 수 있다.

순수한 형식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던 추상표현주의 이후 점차 형식주의적이고 매너리즘의 극치에서 새로운 표현을 갈구하는 현대 미술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라우센버그와 제스퍼 존스에 의해 대변되는 네오 다다와 함께 오브제를 새로운 미적 대상으로 화면에 등장하여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60년대에는 미국의 미술이 강력하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주로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는 팝 아트는 거대한 소비 사회의 형태를 현대인의 물질적 환경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제시해 주는 형식으로 가장 미국적인 회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 등에 의해 각기 개성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3.2 후기 모더니즘 회화의 개념

70년대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 아닌 생각과 마음에 호소하는 미술들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개념미술은 아이디어와 컨셉을 바탕으로 전개하여 생각하는 미술을 개척했다. 이러한 예술의 변화는 새로운 회화의 표현으로 80년대 이후 신표현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장르의 해체 현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 시기의 회화의 주요 흐름은 다원적이고 재현적인 형상회화 즉 구상적요소가 회화에 재등장하고 작품의 조형성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지들의

혼재와 새로운 화면을 이원화시켜 전개해 나아갔다. 한 화면에 구상과 추상이 공존하고 중첩과 병치 또는 드로잉의 방법으로 작품을 전개한다. 이렇게 후기 모더니즘은 형식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특징들을 전개함으로써 예술에서 회화의 문제는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미술은 이제 더 이상 보는 예술이 아니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수많은 개념과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내용들을 채택하고 상호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IV. 현대미술교육에 있어 회화의 다양성

4.1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

4.1.1 사진과 회화

G. 리히터는 사진과 회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다양한 방법의 회화양식을 추구해 왔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성향의 작품을 제작 하였는데, 그 하나가 '사진-회화'로 구상적인 형식과 정치적인 내용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경향은 '추상회화'로 화려한 색상의 물감으로 거칠게 중첩시킨다. 이처럼 사진과 회화 그리고 행위를 동반한 추상에 이르기 까지 G. 리히터 작업의 다양성은 모더니즘 회화양식의 범주로 묶어둘 수 없을 것이다.

G. 리히터의 작품제작은 가족 사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정치적인 주제들도 함께 제작하였다. 그의 추상회화 연작은 형식적인 규칙들을 벗어나기 위해 행위적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을 차용하였으며, 1980년 이후의 추상회화 연작은 이전 작업과는 달리 붓이나 손으로 물감을 캔버스에 바른 다음 그 위에 덧칠을 하거나 긁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방법을 넘어 새로운 추상회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회화들은 그가 물감으로 덧칠해 놓은 사진위에 이미지를 왜곡시킴으로써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손상시킨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의 이러한 애매 모호함과 불투명성이 단지 무의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주제와 양식에 있어 후기 모더니즘 미술의 무

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4.1.2 불확실성

G. 리히터의 ‘사진-회화’는 사진의 초점 흐림 효과나 드로잉적 붓질의 중첩을 이용함으로써 이미지를 애매 모호하게 제시하고 의미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그림 1.
Gerhard Richter,
〈S.mit Kind〉,
41 x 36cm, Oil on
canvas, offset,
composition and sheet,
1995.

G. 리히터는 사진과 회화를 통해 불확실한 회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하나의 대상을 그리는 경우 그 형태가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이려는 듯 변형이 가해지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취할 것인지 는 그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그는 다원적인 매체부터 추상회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미술 경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모더니즘의 양식 안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며 새로운 양식의 시도로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다.

G. 리히터는 대중매체에 나오는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부드럽고 흐릿하게 채색되어 그 이미지를 가까이에서 볼 때는 무엇인지 거의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현대인들의 생활상을 불투명하게 작품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G. 리히터의 작품에 나타난 불확실성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이미지의 변화 보다는 물리적이거나 내면의 욕망에 의해 분출되는 힘의 표현이 일차적인 목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서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G. 리히터의 작업은 후기 모더니즘의 다원적이며 모순된 현실을 반영하고 관습적인 범주나 장르 중 어느 하나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전개하고 있다.

4.2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

4.2.1 인체의 변형

F. 베이컨의 작품에 나타나는 인체 이미지들을 보면 거의 언제나 심한 변형을 겪고 있다. 본래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포와 강박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적절하게 왜곡시키며, 사람이 마치 고깃덩어리를 연상시키는 듯 심하게 모습이 변형 되어있다.

F. 베이컨의 변형된 이미지는 특히 인간의 표현에서 두드러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사실주의를 예고했다. 이는 절망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 속에 인간의 모습을 위치시켜 제멋대로 비틀고 벗겨내고 있다[1]. 그는 인체를 극렬하게 뒤틀거나, 짓이겨진 모습으로 변형시킨다.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 즉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듯 하다.

F. 베이컨이 택한 주제 중에서 특히 주제를 세 쪽 그림의 형식을 통해 표현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 F. 베이컨의 세 쪽 그림은 동일한 대상을 세 개의 화면에서 다룬다. F. 베이컨의 세 쪽 그림은 서로 다른 대상들이 연결되어 구성된다. 그의 회화는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다양한 관점과 시점을 통해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대부분 작품에 나타난 인물이 인간보다는 동물에 가깝게 묘사되어 우리로 하여금 상처 받은 모습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서로 다른 혹은 전혀 다르다고 여겨진 이미지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림 2.
Francis Bacon, 〈Three Studies for Figures at the Base of a Crucifixion〉,
198.1 x 147.3 cm, Oil on canvas,
Three panels, each, 1944.

4.2.2 사진 이미지 차용

F. 베이컨은 주로 사진의 모티브를 얻어 작품에 사용했는데 그 이미지들은 그의 작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

미지를 갖게 된다. 하지만 사진이라는 매체와 이미지의 결합과 변형은 F. 베이컨 회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움직임은 짙은 연속 사진, 즉 과학적 태도에 근거한 사진이라든가 과거의 거장의 작품에서 구성의 틀을 차용하였다[2].

1960년대 이후 현저한 퇴조를 보였던 구상회화의 흐름 속에서 그는 특정 미술 경향이나 사조에 편입되지 않고 구상회화의 명맥을 곳곳하게 이어나갔다. 이로써 전통과의 단절과 회의에 빠져 있는 구상회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F. 베이컨은 다양하게 교황시리즈를 그렸다. 그는 D. 벨라스케즈(Diego Velazquez)의 <교황 이노센트 10세> [3]에서 많은 이미지를 창조하였는데 그가 D. 벨라스케즈의 주제를 다루었던 것은 인간적인 감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F. 베이컨에게 있어서 인체형상들의 형태적인 변화는 형태 자체가 서로 다른 이미지들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형태가 되면서 왜곡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형태 자체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그는 특히 형태를 명확하게 그리지 않고 흐리게 왜곡시켜 심한 변형을 겪음으로써 현실과는 다른 형상의 결합에 의해 완성된다. 이처럼 인간의 형상이 호물거리는 것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 베이컨은 사람을 고깃덩어리처럼 다루고 있다.



그림 3.
Francis Bacon,
<Study after
Velazquez's
Portrait of Pope
Innocent>,
153 x 118.1 cm,
Oil on canvas,
1953.

일그러지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는 힘 즉 운동을 표현

앞서 말한 것처럼 깃뭉개진 형상을 한 얼굴은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F. 베이컨의 공포스러운 형상들은 주로 붓터치를 통하여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의 접근은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오직 물감만이 매혹적이다. 그의 작품에서 인간의 형상은 항상

해야하기 때문이다[4]. 얼굴의 왜곡도 마찬가지로 그의 붓자국은 힘에 의해 완전히 일그러지며 그 형상들은 순간들의 연속을 나타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F. 베이컨의 회화가 형상을 다루는 몇 가지 요소는 몸이 붕괴되고 해체되면서 어긋나기, 겹치기 같은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 기법들은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한 인물에 이질적인 여러 태도와 움직임을 포착하여 여러 시점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런 형상들은 동시에 앞, 옆, 뒤 모습 등 다시 말해서 한 인물을 빙 돌며 얻어진 연속적인 상 안에 모여 있다. 이러한 방법적 시도는 F. 베이컨의 작품에 나타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회화작품을 통한 미술교육연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F. 베이컨과 G. 리히터 작품의 다원성을 연구하여 미술교육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논의를 하였다.

II. 장에서는 미술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 모더니즘 시대에 맞는 미술교육의 필요성이 재고되었고, 후기 모더니즘 미술교육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미술장르가 문화들의 다원론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진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것은 복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III.1장에서는 현대미술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20년대 초부터 점진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이 쇠락해가면서 사회, 정치적인 요인들과 함께 신표현주의 등 뉴페인팅이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유롭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III.2장에서는 후기 모더니즘 회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후기 모더니즘 다원성은 해체주의와 함께 탈 중심화를 도출하였으며 모더니즘의 자기 비판적, 형식미학에서 이탈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IV.장에서는 F. 베이컨과 G. 리히터의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후기 모더니즘의 회화에 대하여 자료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작가인 G. 리히터의 작품은 제작 방법과 주제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행위를 동반한 추상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충되는 양극들을 모두 다루는 그의 다양한 작품은 모더니즘과는 진보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로 F. 베이컨의 회화는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형태의 왜곡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변형된 인체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체의 포즈와 얼굴의 뒤틀림 등 과장 왜곡된 그의 이미지는 탈 합리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유사점을 살펴보면 사진과 회화의 경계, 구상과 추상의 대비, 화면 분할, 이미지의 변형 등을 볼 수 있다. F. 베이컨과 G. 리히터는 파편화되고 혼재(混在)된 이미지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이미지를 해석 불가능하고 뒤섞인 관계들로 조합시키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전통예술과 아방가르드, 구상과 추상으로 구분하여 미술을 계열화시켰던 모더니즘 회화양식의 범주로는 묶어 둘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의 다양한 현상과 양식적 기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적합하게 소화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회화기법들은 기존의 순수 회화 양식이나 조각 등의 매체이용 방법이나 표현양식과는 다른 특징과 표현기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미술은 눈으로 받아들여진 감각요소를 단순히 그린다는 묘사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반영 하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이처럼 창조적 과정을 통한 미적 체험은 학교 교육의 울타리속에서만 경계가 설정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일상적으로 표현행위를 체험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미술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며 무슨 조형 활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미술 교육은 더욱 더 의욕과 흥미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며, 표현매체를 적절히 바꾸어 학습자들의 꿈과 능력을 계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제 미술교육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태도를 유도하려는 모색이 필요하다. 학교 미술교육에서 현대 미술의 다양함과 실험적인 행위까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술교육은 다양한 미적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존의 기법과 방법을 뛰어 넘어 표현의 장을 확대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1] 장 루이 프라델, 『현대미술』, 김소라 옮김, 생각의 나무, pp.38-39, 2006.
- [2] 노버트 린튼,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터모더니즘』, 전영백 옮김, 조형교육, p.340, 2005.
- [3] D, 벨라스케즈(Diego Velazquez)의 <교황 이노센트 10세> 1953년, 윌리엄 버든 컬렉션, 뉴욕, 벨라스케스 작품의 재구성, 이 그림에서 위대한 벨라스케스가 사용했던 시간과 공간에 화합하는 것이 베이컨의 흥분과, 죽음을 향해 열린 뚜껑이 문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는 한 사형수의 울부짖는 흔적이다. 장 루이 프라델, 『현대미술』, 김소라 옮김, 생각의 나무, p.40, 2006.
- [4] 노버트 린튼, 앞글, pp.258-259.

저 자 소 개

안 대 현(Dae-Hyun An)

정희원



- 2000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미술학 석사)
- 2007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미술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 미술교육, 회화, 서양미술사